

‘부강한 나라’ 보다는 ‘아름다운 나라’ 로 (下)

한국의 ‘뜨거운 용광로’ 이수성 전 총리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佐) SGI 회장

1928년 1월2일 도쿄 출생.
창가학회인터내셔널(SGI) 회장.
창가대학(創價大學), 창가학원, 민주음악협회, 도쿄후지미술관, 동양철학연구소 등 설립.
유엔평화상, 한국학관문화훈장 외 24개국 30개 훈장, 세계계관시인 등 수상 다수.
전 세계 대학으로부터 320개의 명예박사, 명예교수 칭호 수여.
토인비 박사와의 대담집 <21세기를 여는 대화>를 비롯한 저서 다수.



‘군국주의’ 대 ‘문화의 힘’

내가 이수성 박사를 도쿄마키구치기념회관에서 맞은 때는 1999년 12월2일이었다. 김구 선생의 순난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기념회관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의 군국주의에 희생당한 마키구치(牧口) 초대 회장을 기리는 건물이다. 김구 선생님도 마키구치 선생님도 ‘힘으로 다른 나라를 억누르는’ 야만스러운 권력과 맞서 싸우셨다. 나는 김구 선생의 다음과 같은 말에 존경을 담아 공감을 표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보다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오직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의 힘으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백범일지>

문화와 교육의 힘으로 평화를! 이는 창가학회의 근본정신과 같다. 이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다운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선생님은 일본도 미워하지 않았습시다. 일본에 강점됐을 때에는 치열하게 싸웠습시다. 하지만 일본이 물러간 뒤에는 서로 신뢰하고 사이 좋게 세계 평화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얼마나 큰 ‘용광로’ 같은 인간애란 말인가. 지금도 아직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많은 지도자의 심성과 천지 차이

가 난다. 물론 '38선'도 본디 일본의 무장해제를 목적으로 미국과 소련이 만든 '잠정적인 경계선'일 뿐이었다. 다시 말해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지 않았다면 그 뒤의 분단도 있었을 리 만무하다. 그 사실을 일본인은 어디까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분단의 비극에 막이 내리기를 바라는 이 박사는 김대중 대통령의 자문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지냈다.

납치된 아버지

김구 선생이 암살된 이듬해,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잊혀지지 않는 1950년 8월10일, 이 박사의 집에 큰 비극이 일어났다. 아버지가 '납치'된 것이다. 그 뒤로 생사도 분명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의 첫 법무부장관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이 박사는 "아버지는 일본의 지배 아래에서 판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절개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기는 커녕 많은 독립투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석방했다.

"아버지는 주일공사가 되라는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당시에는 대사가 없고 공사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대통령과는 노선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으로는 김구 선생님을 존경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산주의자'로 내몰던 적도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지만요."

여성 혼자의 힘으로, 위대한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가 납북된 후 어머니는 어린 자녀 여덟을 키우느라 고생이 말이 아니었다. 일본여자대학교에서 문학을 공부한 재원이었지만 당시에는 여성이 일할 직장도 없었다. 고무신이라는 한국 전통의 신을 팔기도 하고 택시사업을 하다가 마침내는 유일한 재산인 집까지 팔아야 했다. 열 번이나 이사했고 그때마다 집을 줄여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다.

아무리 살림이 쪼들려도 자녀가 책을 사는 데에는 한 번도 돈을 아끼지 않았다. "친구는 재산이다"라며 자녀들의 친구를 언제나 기꺼이 대접했다. 어머니의 교육 방침은 '꾸짖기보다도 칭찬하는 편이 사내다운 용기를 키운다' 였다. 어머니는 결코 무조건 야단치지 않았다. 자녀들에게도 "절대로 앞서 화를 내면 안 된다. 참을 인(忍) 자를 마음속으로 세 번 써라" 하고 타일렀다.

"일기를 쓰는 사람은 정도(正道)를 걷는다"라며 일기 쓰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하고 독서에 따른 사고력과 문장력, 그리고 표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쳤다.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재산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을 남겨 주셨다. 너희도 작은 일이라도 부당한 일에는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올바르게 못한 일에 머리를 숙이면 안 된다." 그리하여 여덟 명을 모두 대학에 보내 훌륭히 키워 냈다. 위대한 한국의 어머니이다.

이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어머니에게서 가장 크게 배운 점은 '자부심을 지니는 것'입니다. '궁지를 지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 나는 살아오면서 무척 고생했습니다. 그렇다고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는 "앞으로도 남들이 '바보 같다!'고 말할지 모릅니다만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라며 웃음 지으셨다.

이 박사의 바둑 실력이 대단하다며 화제가 되었을 때에도 "장기나 바둑은 '전략적인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실은 전략적인 삶의 방식은 싫어하지요. 순수한 삶의 방식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정치가로는 맞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중은 그런 사람에게 정치를 맡기고 싶어한다. 1995년, 이 박사는 서울대학교 총장이 된 해에 갑자기 총리로 발탁됐다. 이 박사는 망설였다. 자신은 교육자로 사는 것을 최고의 궁지로 여기고 있었다. 부인도 울며 반대했다. 어머니도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자신을 버리고 나라에 봉사하겠다고 결단했다.

정치는 '진흙탕에 연꽃 피우는' 일

"정치판에서 청렴결백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골이 매우 깊습니다. 하지만 정치란 '진흙탕 속 싸움'이 아니라 '진흙탕에 연꽃을 피우는 일'이어야 합니다.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이어야 합니다. '정치가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정치'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국민에게 한 없이 겸허해야 합니다. 지위가 오르면 오를수록 더욱 철저히 겸허하고 헌신해야 비로소 독재가 없어지고 민주주의가 전진합니다. 민주주의가 전진한 만큼 국민의 에너지를 끌어내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박사의 행동에서 커다란 사랑이 배어 나온다. 장애인의 작은 모임에도 평상복 차림으로 슬그머니 나



정치란 '진흙탕 속 싸움'이 아니라 '진흙탕에서도 연꽃을 피우는 일'이어야 한다.

(이케다 다이사쿠 SGI 회장 촬영)

타나 월제어를 밀면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셨다고 들었다. 항상 '단상에서 사람을 내려다보며 공허한 말을 털어놓는' 내빈만 보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 박사가 오랫동안 익명으로 장애인단체에 지원금을 보낸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 적도 있었다.

이 박사가 남동생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나 형제 모두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이 박사는 구속된 운전기사가 불쌍해 여기저기에 탄원서를 제출해서 무사히 석방되도록 하였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아름답다는 것은 강하다는 것이다. 나는 "박사의 인생은 많은 사람의 '교과서'입니다" 하고 말했다. 이 박사는 스승으로 우러르는 김구 선생이 '백범'이라고 호를 붙인 것을 본떠서 자신의 다짐을 '우범(又凡)', 또 한 명의 백범이라는 뜻의 호에 담고 있다.

한·중·일에서 '삼국 단결'의 힘을!

21세기의 아시아를 주제로 나와 대화를 나눌 때에도 이 박사의 생각은 김구 선생의 사상을 곧바로 이어받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박사는 "서양의 물질문명에 대해 한국, 중국,

일본이 우정으로 서로 신뢰하여 '삼국이 단결한 힘'을 나타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20세기는 '부국강병'이 동아시아 각국의 지상 과제였다. 그런 만큼 '평화연대'를 추구하는 지성의 역할은 경시됐다. 21세기의 동아시아는 김구 선생이 제시한 고차원의 국가관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시다. 다시 말해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바로 그 영원한 명언이 지금도 뜨거운 피가 돼 이 박사의 오체를 돌고 있으리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보다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지금 우리는 보았다.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아름다운 삶의 자세'가 전해지는 드라마를.

우리는 알았다.

거기에 비로소 '아름다운 나라'의 참모습이 있음을.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일본도 바로 지금 이 '아름다운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